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8년 8월 10일(금)
..(음력 6월 29일)..

Пятница
10 августа 2018 г.
№ 31(116798)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지난 8일 <크리스탈>스포츠회관에서 약 3000명이 모인 가운데 러시아기능올림픽 챔피언대회를 성화리에 개막했다.
(사진: 사할린주정부 홍보실 제공)

단신

사할린주와 노브고로드 주정부 협력협정 체결

사할린주 정부와 노브고로드주 정부 간 협력협정을 체결했다. 지난 8일 올레그 코제마코 사할린 주지사와 안드레이 니키틴 노브고로드 주지사가 경제무역, 과학기술, 사회문화와 기타 분야에서 협력에 대한 문서에 조인했다.

사할린주와 노브고로드주 정부 간 관계를 강화하기로 한 부문으로는 산업, 농업, 무역, 사업 부문, 운송업, 보건, 과학, 문화, 교육, 스포츠와 청소년정책 분야다.

또한, 양 지방 대학생들의 실습, 학업 및 스포츠의 우수 학생들의 교환 방문, 업체 대표들 교류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특히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은 전망이 높다고 주지사 홍보실이 보도했다.

사할린주 정부 구조 변화

사할린주 정부 부수상으로 세르게이 포포브가 임명되었다. 그는 디지털경제 및 통신, 사할린주에서 국가프로젝트 시행에 따른 지방 및 정부기관과 관련한 문제를 담당하게 된다.

사할린주지사 올레그 코제마코에 따르면 현 사할린주 정보기술 및 통신청은 정보기술통신부로 개편되어 디지털경제의 요구들을 고려해 정보를 체계화하는 분석 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새로운 부서의 과제는 디지털 개발, 정보화, 안전정보 분야와 다기능센터를 통한 지방과 국가조직의 업무 분야에서 국가 정책대상의 실현과 디지털경제의 발전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또한 농산물가공 담당업무는 주농업부로 개편되고, 주 상업부는 상업청으로 변형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학생 19명 사할린한인역사 탐방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한국청소년북서울연맹 아람지역협의회가 모집한 학생단(학생 19명, 인솔교사 3명)이 사할린한인역사탐방, 러시아문화탐방 등의 목적으로 사할린을 찾았다. 이들은 사할린한국교육원에서 사할린과 사할린한인역사에 대한 특강을 듣고 비코브 탄광, 코르사코브 망향의 언덕, 유즈노사할린스크 박물관들과 시내 견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문화체험은 아니와에서 이뤄져 아니와한인회 배영희 부회장이 한국 방문단 접대를 담당했다.

아람단 측에서는 학생 모집이 잘 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사할린에 학생들을 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사할린 영주귀국자 역방문 시작

대한적십자사(한적)는 한국에 영주귀국해 사는 사할린 한인 1세 376명의 올해 역방문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역방문 대상자들은 지난 7일 55명을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사할린 등지로 출국한다. 이들은 현지에 남아있는 한인 2,3세 가족 등과 함께 희망에 따라 1-3개월간 체류하게 된다.

지난해까지 총 4천395명의 사할린 동포가 영주귀국했고, 이 가운데 2천825명이 서울·안산·인천·파주·김포·천안·원주 등지에 정착했다.

8월 18일 광복절 행사에 남과 북 예술인들 출연

해마다 8월 셋째 토요일을 사할린 한인들은 광복절,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남부 사할린과 쿠릴열도 해방을 기념해오고 있다.

이번에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광복 73주년 기념행사가 8월 18일 새로운 장소인 <러시아는 나의 역사>박물관 부근 행사장에서 펼쳐진다. 주한인회가 주최·주관하는 이 행사는 올해는 이슈가 될 만하다. 행사에는 사할린,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아티스트들이 참여하여 공동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14명이 초대되었고 이들은 통일음악단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사할린 무대에 서게 된다. 통일음악단 예술인들 중 모란봉악단과 삼지연 악단 소속 예술인들도 있다고 전해졌다. 14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 도착할 통일음악단은 유즈노사할린스크 행사를 앞두고 15일 마카롭시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조선팀은 민족의 노래 외에 러시아노래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는 국립국악원 대표단(24명)이 방문한다고 알려졌다. 유즈노사할린스크 광복절 행사 외에 주한인회 부탁으로 한국 예술인들은 19일 토마리 광복절 행사에서도 공연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팀은 민요와 전통무용, 판굿 등을 준비한다.

18일 광복절 행사는 사할린주 정부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행정부에서 크게 지원한다. 행사장 선정하는 데도 많은 도움을 주고 무대도 설치하고 의자(500여석) 등을 제공한다.

박순옥 주한인회 회장은 이번 광복절행사의 일환으로 비빔밥 축제, 무술축제, 씨름, 스포츠경기, 민속놀이, 민속공예 활동교실, 미술전, 사진전 등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번에 더 많은 주민들이 찾아와서 25여년 만에 사할린에서 이뤄질 남북 공연도 관람하고 활동교실, 스포츠경기 등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이번 행사장은 포베다(승리)광장에서 남쪽 방향에 위치한 러시아 정교회 성탄대성당, <러시아는 나의 역사>박물관 근처 장소다.

주최 측은 사람들이 편하게 공연을 볼 수 있도록 좌석이 마련돼 있다고 강조했다.

(배순신 기자)

사할린, 러시아 월드스킬스대회 개최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8월 8일-12일간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제6회 '청년 전문가'러시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WorldSkills Russia)가 개최되었다.

지난 8일 <크리스탈>스포츠회관에서 약 3000명이 모인 가운데 러시아기능올림픽 챔피언대회를 성화리에 개막했다. 행사 참가자들에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 등 국가 인사들이 보낸 축하인사가 전해졌고 올레그 코제마코 사할린주지사, 월드스킬스 러시아 연합 로베르트 우라소브 회장, 러시아 교육부 이리나 포제히나 차관을 비롯한 여러 귀빈들이 직접 환영하고 대회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9일부터 11일까지 63종목에서 전국 85개 행정 지역을 대표하는 학교 학생과 대학생 850여 명이 경쟁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작업에 약 900명의 전문가들이 평가하게 된다. <청년 전문가> 러시아 월드스킬스 결승전은 16세부터 22세까지의 전문학교와 대학교 학생, 14-16세의 학교 학생들이 전문기능을 겨루는 러시아의 가장 규모가 큰 대회다. 이 대회를 위해 이번에 3500여명이 사할린을 방문했다고 전해졌다.

사할린주에서는 49명의 학생 대표들이 이 명성 높은 대회에 출전하여 29개 종목에서 경쟁할 예정이다. 이번 기능대회에서 메달을 따낸 우승자들은 국가대표팀 구성원이 된다. 이들은 유럽 부다페스트 월드스킬스 대회와 2019년 러시아 카잔에서 진행될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권리가 주어진다.

이번 대회에 러시아 전문가들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전문가들도 사할린을 찾았다. 한국에서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추천으로 대회 심사전문가로 5명(가공, 건축, 미장, 귀금속 공예, 제과 제빵, 그래픽 디자인)이 방문했다.

러시아 사할린 월드스킬스대회에는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중에는 사할린주한인회 청년부 소속 젊은이들(7명)도 있다고 청년부 담당 박현성 씨가 전했다.

기능대회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매일 다양한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월드스킬스대회 폐회식은 8월 12일 개최된다.

(본사 기자)

호 소 문

3만 1천 여 사할린동포를 대표하는 <사할린주 한인협회>는 우리의 정통성을 위협하며 사익을 취하려는 <사할린주 한국한인회>의 만행에 대해 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과 사랑하는 사할린한인들에게 호소합니다.
조금 긴 글이지만 간곡히 일독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 7월 30일

사할린주한인협회장 박순옥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위원

1. 3만 1천 여 '사할린 한인'을 대표하는 단체는 <사할린주한인협회> 뿐입니다.

'사할린 한인', '사할린 동포'로 불리는 우리는 일제강점기 사할린으로 모집 및 징용되어 전쟁 종료 후에도 사할린에 잔류된 한국인과 그의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표하는 단체는 1990년 러시아연방 사할린주 법무부에 공식 등록된 <사할린주한인협회> 뿐입니다. 우리는 지난 30여 년간 영주귀국, 유골봉환, 의료지원 등 대한민국 정부사업 보조업무를 비롯해 사할린 한인의 권익보호와 위상제고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재외국민 친목단체인 <사할린한국한인회(2013년 창립, 현재 회원 20-30명)>가 한국에서 사할린 동포를 대표하는 단체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우리 사할린 동포들을 방문 및 지원하고자 하는 한국의 단체와 유명인사들에게 <사할린한국한인회>는 유사명을 이용하여 마치 사할린 한인을 대표하는 단체인 양 행동하고 있습니다.

2. 무엇이 문제인가?

사할린에도 100여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거주하고, 이들이 모임을 만들어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는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할린 한인'을 위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선의와 관심을 <사할린한국한인회>가 사적 이익과 명예욕을 위해 악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할린주한인협회>의 자리를 조금씩 밀어내던 <사할린한국한인회>

2015년 8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제1공동묘지에 사할린한인위령비가 세워질 당시만 해도, 사할린주한인협회장의 이름은 빠지고 사할린한국한인회 회장 이름만 새겨진 것이 실수라 믿었습니다.

2017년 7월, 〇〇시 의원들의 사할린 방문 시 강당에 모여 기다리고 있는 동포들과의 약속을 사전통보 없이 어기고, 사할린한국한인회와의 만찬에만 참석한 것도 유사한 단체명에서 비롯된 오해일 것이라고 굳이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음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할린 한인'의 이름과 정체성까지 앗아가려 하다!

지난 5월, <사할린한국한인회>는 <사할린주한인협회>가 러시아 국적자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명칭을 <사할린주고려인동포회>라고 변경해야 하며, 본인들이 <사할린주한인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습니다.

기존 단체명과 중복되지만 않는다면, 자신들의 명칭을 어떻게 바꾸든 그것은 그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 단체명을 <사할린주고려인동포회>라고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더욱이 학계에서도 정부에서도 '고려인'과 '사할린한인'을 엄연히 구분하고 있으며, 우리 역시 우리 조상들의 역사적 특수성을 잊지 않기 위해 '사할린한인'이라는 고유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추모관인가?

올해 8월 말, 사할린에는 사할린 동포들도 알지 못하는 추모관이 건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추모관이 <사할린한국한인회> 회장의 사유지인 '록산원'농장에 건립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탐방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탐방은 물론 그럴듯하게 역사탐방의 형식을 빌리고 있지만, 일정에는 '록산원 내 목축장 관람'도 들어있습니다. 또한 그는 추모관 근처에 숙박시설도 건립하여, 이 일정을 일종의 '힐링 프로그램'으로 이용할 뜻도 서슴지 않고 내보이고 있습니다.

사할린 한인들도 초청받지 못한 이 추모관 건립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사유지에 건립된 추모관이 얼마나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요? 우려되는 사실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추모관에는 위패가 모셔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인정보로서 우리 한인회에서도 보안을 철저히 생각하는 사할린 한인 희생자들의 명단은 과연 어떤 경로로 수집된 것이며, 무연고 희생자라는 이유로 어떤 동의도 없이 사용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3. 상주 자리마저 빼앗은 <사할린한국한인회>의 만행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할린한국한인회> 회장이 사할린 한인을 대표하여 국내 유명·유력 인사들과 가까워지고, 언론과 홈페이지에 그의 만행을 미화하여 대서특필하는 동안, 우리는 한국어가 부족해서, 한국에 우리를 알릴 힘이 없어서, '설마'하는 심정으로 그저 참고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겨레통일문화재단'과 '한겨레신문사'라는 국내 유력기관들마저 진실을 알지 못한 채, 선의를 악용하는 모습을 더 이상 목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리고자 하는 일제강점기 징용자들의 후손은 <사할린한국한인회> 회장이 아니라, 바로 3만 1천 여 사할린동포를 대표하는 우리 <사할린주한인협회>입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우리 조상들의 추모관 건립행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슬픈 역사의 틈새에서 잊혀진 '사할린 한인'을 기억해주시는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버젓이 존재하는 상주 자리를 탐하려는 이의 속내를 읽어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러시아어 본문 4면에 게재)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두고

어머님의 슬픈 노래

사할린동포 2세 이채인



이채인: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 <피라미다>종합설계건설회사 대표이사.
로스토프-나-도누 건축대학 졸업/건축감리사, 사할린주 건축협의회 회원.

어느 따뜻한 봄날에 어머니가 유리창 청소를 하시면서 노래하셨다. 나는 노랫말의 내용은 잘 몰랐지만 슬픔의 노래란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어머니께 여쭙 보았다.

- 어머니, 왜 이렇게 슬픈 노래를 하십니까? 노래 내용은 무엇인데요?

- 야! 이놈아! 너는 타국에서 태어나 조국이 무엇이며, 조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냐?

- 너의 조국은 한반도에 있는 조선이란 나라다. 그곳엔 검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는 조선 사람들만 살고 있는 곳이란단다

- 그럼 그 섬에 살지, 왜 여기서 슬픈 노래를 하고 있습니까?

- 옳다! 이런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다.

- 내 말 잘 들어 봐라.

- 지금 사할린에 사는 조선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다.

나라가 힘이 없어 쪽바리놈들에게 잡혀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화태"란 섬에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이다. 하지만 오늘날 나라가 해방 되었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걸 보니, 우리를 부르는 사람이 없는 모양이다.

더 기다려 보자. 차차 해결되겠지.

그때 나는 내가 사할린에 사는 민족 중 그들과 다른 민족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다.

- 어머니! 한반도에 위치한 조선이란 땅이 이 지구상에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 조선 땅을 가려면 사할린 섬에서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가야 도달할 수 있어. 하지만 국경이 가로막혀 갈 수가 없단다. 고약한 일본놈들은 전쟁이 끝나자, 자기네 사람들만 빼두고 가면서 우리들을 이 땅에 내버려 두고 떠나갔단다. 이것은 왜놈들이 인간적으로 아주 잘못된 것이야.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 데리고 왔으면, 우리를 조선 땅으로 데려다 줘야 마땅하지. 왜 자기들만 속 빼져 나갔는지?

그런데 전쟁이 끝난 지 벌써 12년이 지났어도 소식이 없는 것을 보니, 쉽게 풀릴 문제 같지는 않구나. 이런 말을 들은 나는 갑자기 목에서 북받쳐 오는 서러움을 어찌 할 수 없어, 나의 집 마당 뒤쪽 산비탈을

타고 정신없이 산으로 뛰어 올라갔다. 한참 올라가다가 힘이 없어 늘어지니, 구름 한 점없는 푸른 남쪽 하늘이 내 눈에 보였다.

- 아! 그래! 언젠가 조국 땅 한 번 밟아봐야지. 푸른 남쪽 하늘 아래 조국이란 땅이 있구나. 새파란 푸른 하늘 아래 반가운 내 조국, 내 나라가 있구나.

한국아! 참 그리고, 그리고 구나!

어느덧 시간이 흘러 1990년경 개혁의 바람을 타고 국경이 열렸다. 국경이 열리자마자, 한국에서 돈 벌려고 사업가들이 별떼처럼 사할린으로 몰려들었다. 그런데 한국 정부 쪽에서는 이상하게도 움직임이 보이지 않았다. 그 대신 한국적십자를 통해 "이두훈"이라는 한국 사업가가 사할린에 와서 쌀, 양말 등 생필품을 가져와 나눠주었다. 그때 구소련이 "베레스트로이카"로 인해 나라가 뒤집어져 엉망이라, 양식이 터무니없이 부족할 때였다.

하지만 사할린에 사는 많은 한인들은 1945년에 누리지 못했던 해방을 아직도 기다리고 있었다. 국적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조국이 잊어버린 자기 민족을 찾아갈 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부강해져 88올림픽까지 치른 한국 사람들은 사할린 한인들에게 고작 쌀을 갖다주고 양말만 갖다 주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이 한국 정부의 정치방침이라는 것을 모르고 순진하게 계속 기다렸다. 지금에 와보니, 이것이 한국 정부의 답이었다.

나라가 힘이 없어 우리 부모와 형제가 타국에서 50년 이상 고생하다 고향 땅도 못가고 돌아간 밭가가 고작 양말 한 켤레 값밖에 되지 않는단 말인가?

정치적으로 보면 너무나 무책임하고 자기 민족의 비극을 비웃음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닌가?

개 새끼도 같이 살다가 시간 내에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주인이 찾으러 나가는데, 왜? 나라가 광복 된 지 70년이 지났는데도 잊어버린 자기 민족을 오늘까지 찾지 않고, 찾을 생각조차 안 하는가?

도덕적으로 보면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한국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얼굴을 들고

살 수 없는 것이다.

지금도 사할린에 살면서 어디서 온 사람인지 우리에게 물어볼 때는 부끄러워 답을 할 수가 없다.

일본이 버린 사람들, 조국이 70년간 찾지 않은 한인들이라고 대답하기가 부끄럽기 때문이다.

자기 민족을 위해 애타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다.

70년이 지나가도, 100년이 지나가도, 민족의 피는 속일 수 없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다.

이 문제는 민족의 자존심과 나라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꼭 해결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족의 체면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조선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가 아니다.

사할린에 사는 한인들을 일제가 사할린 땅에 갖다 버렸어도, 한국 정부가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민족의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부끄러움을 꼭 타국에서 태어나 타향살이를 해봐야 뼈저린 아픔을 느껴보는가?

어째서 한국에 사는 한인들은 이 문제를 무시하고 있는가?

민족의 뼈아픈 역사를 모르고 있는지?

벗어난 지 시간도 많이 지나지 않았는데 벌써 다 잊어버렸는지?

이 문제는 사할린에 사는 한인들을 위해서만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

남북한 할 것 없이 한반도의 전통민족인 조선민족의 자존심을 살리는 문제이다.

대한민국의 체면을 지키는 문제다.

유즈노 사할린스크로 가는 모스크바 비행기 좌석에서
02.07.2018

새고려신문

2018년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8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 할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인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79루블리 3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제4회 사할린한인청소년역사 캠프 열려

지난 7일(화) 제4회 사할린한인청소년역사 캠프가 열렸다. 이날 아침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있는 개막식에는 캠프 지도를 맡은 주한인회 김홍지 회장, 사할린주한인회 박순옥 회장, 사할린한국교육원 김주환 원장, 그리고 역사 프로그램 등 맡은 진 율리아 역사학 박사가 학생들을 격려했다.



다. 이들은 4일간 투나이차 휴양 캠프에 머물면서 사할린한인역사도 배우고 여러 활동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본사 기자)

박순옥 주한인협회 회장에 따르면 이번 캠프 프로그램에 각 지방을 대표하는 학생들이 참가하고 이들은 주로 교육, 창작 또는 스포츠 등에서 남다른 성과를 보여준 학생들이다.

이번 캠프에는 학생 22명을 모집했

한국 작가 18명, 사할린 방문

지난 4일-7일간 한국 푸른아동청소년문학회 사할린 역사탐방단(작가18명, 단장 문영숙 회장)이 사할린을 방문했다. 문 회장에 따르면 작가들은 포자르스크에 (미주호)촌 27인 한인 피살자 추념비를 찾아 추념하고 시네고스크에 거주하는 강제징용자 김윤덕 할아버지(95세)를 찾아가 생생한 증언을 들었다. 그리고 코르사코브 망향의 언덕에서는 그 당시 일본으로 돌아가기 위해 배를 기다렸던 한인들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생각하며 울컥하여 가슴이 먹먹해지는 순간이 몇 번이나 되었다.

8월 6일, 사할린을 떠나기 전날 한국 동화작가들은 주한인회 관계자, 1세 어르신 10명, 최재형 기념사업회 장학생 등을 저녁 만찬에 초대하여 사할린 한인역사를 더 많이 알리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 참가자들은 김주환 사할린한국교육원 원장의 사할린과 한인 관련 특강을 듣고 <우리말 방송>이 제작한 <동상>다큐멘터리도 관람했다. 만찬회 자리에서 최재형 기념사업회 상임이사인 문영숙 작가는 사할린주한인회 박순옥 회장에게 사할린을 방문한 작가들의 책들을 전달했다. 그리고 사할린국립



대 장 엘리자베타 학생에게 최재형 사업회 장학금을 전했다. 이에 장 학생은 한국어로 2년째 받고 있는 장학금이 여러 목적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감사인사를 했다.

한편 문영숙 작가는 한국에서 여러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최근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독립운동가 최재형에 대한 책을 출판했다.

(배순신 기자)

사할린 한인, 그들은 누구인가

최경옥(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전호의 계속)

5. 돌아올 권리란?

1. 재외동포들의 돌아올 권리와 법적 자취

(1) 돌아올 권리란?

이 글 제1회(2018. 7. 6.)에서 언급하였듯이 인간은 세계 어디든지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세계적인 기준으로는 세계인권선언문(1948. 12. 10. 제정) 제13조에는 '모든 사람은 자기 나라 영토 안에서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든 살 수 있다. 또한 그 나라를 떠날 권리가 있고, 다시 돌아올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국제인권규약 제12조 4항에는, '어느 누구도 자국으로 돌아갈 권리를 자의적으로 빼앗지 못한다.'(No one shall be arbitrarily deprived of the right to enter his own country)라고 규정되어 있다.

위 두 선언문에서는 '다시 돌아올 권리'도 있고, '자국으로 돌아갈 권리를 자의적으로 빼앗지 못한다'라고 하여 '돌아올 권리'의 적극적인 면과 이러한 권리를 자의적으로 빼앗지 못하는 소극적인 권리의 양측면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할린으로 강제 이주되었던 사람들은 해방과 동시에 고국의 품으로 귀환할 수 없었다. 이들은 왜 고국에 즉각적인 귀환을 할 수 없었으며, 그 이후에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하였는지 하는 자취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다른 나라들의 돌아올 권리에 관한 규정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

독일기본법 제116조(국적) 제1항, '이 기본법에서 말하는 독일인이란 법률

에 달리 규정이 없는 한, 독일 국적을 가진 자이거나, 1937년 12월 31일 현재 독일국 영역 내의 독일 혈통을 가진 망명자 또는 피추방자 또는 그 배우자나 비속으로 받아들여진 자이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구 소련 와해 이후 190만 귀환 동포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여 돌아올 권리를 보장하였다. 이는 독일이 1990년 통일을 이룬 이후 1999년 5월 개정하여 2001년 시행하고 있는 신국적법에 따라 혈통상 독일인(ethnic German)의 국적 취득의 길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독일에서는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1948년 건국하였으며, 1950년 『귀환법(the Law of Return)』을 제정하여 '올레(Oleh)', 즉 이스라엘로 이주하는 모든 유대인에게는 귀환의 권리를 인정하여 이스라엘 국적을 부여하였으며, 이스라엘에 입국하는 날 또는 '올레증명서' (Oleh's certificate)를 발급받는 날로부터 부여된다. 다만 국적 취득을 원하지 않으면 3개월 이내에 그러한 의사를 표명하면 된다. 더 나아가 1970년에는 동법을 개정하여 이스라엘로 귀환할 권리의 대상자를 확대하여, 유대인의 자녀와 손자녀 및 그 배우자까지 포함하였다. 이는 비유대인과의 결혼의 경우 '가족결합권(right of the unit of families)'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스페인 내전과 프랑코 독재 치하에서 해외로 이주한 스페인계 후손에게 국적을 부여하는 역사기억법을 제정하였다.

한편 중국의 경우, 국내법상 특별한 규정없이 외국에 거주하는 '화교'에 대하여 이들을 모두 중국국적자로 간주하였다.

(7면에 계속)

이모저모

사할린 주민들 <주황색 공> 길거리 농구 경기에 초대

8월 11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체육인의 날을 기념하는 축제행사가 열린다. 축제 행사 중 <주황색 공> 전국 길거리 농구는 각팀의 3명이 한 조가 되어 펼치는 가장 빛나는 행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농구경기는 주 중심도시에서 8년째 이어져 진행되고 있다.

"사할린주에서 이 경기는 대단히 인기있는 정례적인 행사로 진행되고 있다. <2018년 주황색 공> 농구 시합은 알렉산드로브스크-사할린스크·돌린스크·코르사코브·포로나이스크·티몹스크·우글레고르스크·홉스크 구역에서 진행된다. 유즈노사할린스크는 전례대로 길거리농구 시합의 중심지가 된다." 고 사할린주 농구협회 회장인 블라디미르 워드네브가 전했다.

경기는 3그룹의 연령별로 나뉘어 진행된다 - 16세 미만 청소년(2002년생 이하); 17-18세 청소년(2000-2001년생); 성인 남녀(1999년생 이상).

<2018년 주황색 공>전국 길거리농구 경기는 8월 11일 공원 내 행사장('코스모스' 운동장과 전 자동차 경주장)에서 10시에 시작된다.

우승팀과 수상자들에게는 트로피를, 참가자들에게는 러시아 스포츠부의 메달과 증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Сахалинцам предлагают поучаствовать в баскетбольных состязаниях "Оранжевый мяч"

11 август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йдут праздн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священные Дню физкультурника. Одним из самых ярких событий этого праздника обещают стать всероссийски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баскетболу 3 на 3 "Оранжевый мяч". Состязания баскетболистов пройдут в островной столице уже восьмой год подряд.

—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эти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водятся традиционно и пользуются больш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Турниры "Оранжевый мяч — 2018" будут организованы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м, Долинском, Корсаковском, Поронайском, Тымовском, Углегорском

и Холмском районах. Ну а центром баталий гулливеров, как обычно, станет Южно-Сахалинск, — говорит президент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федерации баскетбола Владимир Воднев.

Соревновани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городского парка пройдут в трех возрастных группах: юноши и девушки до 16 лет (2002 г.р. и младше); юноши и девушки 17 -18 лет (2000-2001 г.р.); мужчины и женщины (1999 г.р. и старше).

Всероссийские соревнования "Оранжевый мяч — 2018" пройдут 11 августа на площадке парка (стадион "Космос" и площадка бывшего Картодрома). Начало в 10:00.

Команды-победители и призеры соревнований будут награждены кубками, а участники медалями и дипломами Минспорта России.

<세상의 끝> 사할린국제영화제에서 대규모 축제 조성 수업에 초대

<세상의 끝>제8회 사할린국제영화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영화제작 활동교실에 신청등록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 활동교실은 4 개로 이중 두 교실은 이전에 시작한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두 교실은 완전 새로이 개설되었다.

영화제 총 감독 알렉세이 아그라노비치는 "우리는 학생들과 작업에 있어서 중점 활동을 변경하기로 했다." 며 "우리의 과제는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창작예술의 전문성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취미로서만이 아니라 장래 직업적 발전을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을 정도로 지원하고 발전시키려는 데 노력하고 있다. 작년에 우리는 <섬들> 애니메이션과 청소년 영화제작의 활동교실을 진행했다. 창작과정에서 학생들의 열망과 집중력은 우리가 바랐던 일을 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청소년 제작교실에 몇몇 학생들은 국립영화예술대학에 입학하기로 했다."고 'Sakh.com' 언론기자에게 설명했다.

두 개 활동교실팀은 추가모집을 홍보하지 않는다. 이미 구성된 팀은 수준급으로 '축제에서 축제까지'의 수준에서 정기실습 수준으로 다소 향상된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다. 올1년간 교수들과 큐레이터들이 사할린을 방문하여 학생들과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의 창조적 불꽃을 유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새로이 개설된 활동교실은 12세-16세 연령의 참

가자들을 위한 교실이다.

사할린의 청소년들에게는 디자이너와 영화제작자로서 자신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성공' 영화제작교실과 '7일, 24시간'디자인교실은 새로이 개설된 활동교실로서 첫째 교실에는 알렉세이 아그라노비치와 '직접 해봐라' 활동교실로 사할린 주민들에게 잘 알려진 인류학자 미하일 알렉세예브스키가 진행한다. 둘째 교실은 그래픽 디자이너이자 <세상의 끝> 영화제 브랜드 디자인 제작자인 키릴 블라고다트스키흐와 안나 나우모와가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참가신청서 심사기간은 8월2일부터 시작해 19일까지 계속된다.

"Край света" приглашает научиться делать большие фестивали

Совсем немного времени осталось у сахалинцев, чтобы записаться в киномастерские 8-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инофестиваля "Край света". В этом году их четыре: две продолжат начатую ранее работу и две совершенно новые.

— Мы решили перенести акцент мастерских на работу со школьниками, — рассказал корреспонденту ИА Sakh.com генеральный продюсер фестиваля Алексей Агранович. — Наша задача — постараться пробудить или же поддержать и развить у детей и подростков интерес к разным творческим профессиям до такого уровня, чтобы они воспринимали их не как хобби, а как возможность для дальнейше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В прошлом году мы открыли анимационную мастерскую "Острова" и подростковую киномастерскую. Заинтересованность детей и их погруженность в творческий процесс показали нам, что мы на верном пути. В подростковой лаборатории уже есть несколько человек, которые собираются поступать во ВГИК.

В две эти мастерские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набор не объявляется: команды уже сформировались, и довольно сильные, они будут продолжать работу, которая с уровня "от фестиваля до фестиваля" поднялась на уровень более-менее регулярной практики. В течение года на Сахалин прилетают преподаватели и кураторы, они занимаются с ребятами и поддерживают в них созидательный огонек.

(8면에 계속)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Молодежн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лагерь дл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ских детей

В период с 7 по 10 августа проходит молодежный исторический лагерь. Он организован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и поддержке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Лагерь проходит уже в четвертый раз (с 2015 г.), в этом году он территориально находится в окрестностях озера Тунайча.



Работой лагеря руководит главный корейский старейшина—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старейшин Ким Хон Ди(Виктор Николаевич).

На открытии лагеря он представил ребятам президента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Оксана Владимировна), директора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К на Сахалине Ким Джу Хвана, а также кандидата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Юлию Ивановну Дин, которая вместе с Ким Хон Ди стояла у истоков создания лагеря, выработала концепцию и создала эмблему лагеря.

На протяжении работы всего лагеря Юля Дин рассказывала ребятам об истории Кореи, основных элементах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корейских традициях и обычаях, а также о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Организаторы отметили, что дети испытывают неподдельный интерес к истории своих семей, к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а, к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и традициям.

Свободное время было посвящено играм и различным занятиям.

В лагере отдыхали более 20 детей из разных район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ива, Холмск, Быков, Долинск,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 т.д.), вместе весело проводили время на природе, пытались лучше узнать друг друга.

(Наш корр.)

**11:00 18 АВГУСТА
2018 года**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иглашает горожан и гост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на праздник ДРУЖБЫ, посвященный 73-й годовщине освобожд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от японского милитаризма. В праздничных мероприятиях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артист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и местные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В рамках праздника состоятся выставки, мастер-классы, фестивалы восточных единоборств, фестиваль Бибимбап и многое другое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ится на площади, прилегающей к историческому парку «Россия-Моя история» по ул. Священномученика Илариона Троицкого

О Б Р А Щ Е Н И Е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РООСК) от имени 31 тысяч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обращается к уважаемым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чтобы сообщить о действиях Ассоциа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которая из личной выгоды угрожает нашему авторитету. Искренне прошу дочитать текст Обращения до конца.

30 июля 2018 года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Член Комитета политики зарубежны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1. РООСК является един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которая представляет интересы более 31 тысяч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Мы, кого называют «сахалинскими корейцами», «сахалинским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и», являемся потомки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е были принудительно завезены на Сахалин в период японской оккупации и остались жить здесь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войны. И един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ей, представляющей нас, является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официально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ая в 1990 году в Министерстве юстиц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ротяжении более 30 лет мы прикладывали душу и силы ради защиты прав и интересов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и повышения их статуса, оказывая помощь в осуществлении таких проектов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ак репатриация, перезахоронение останков, медицинская помощь и т.д.

Однако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Ассоциация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основана в 2013 году,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количество членов: 20-30 чел.) превратилась в организацию, пытающуюся представлять интерес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Эта организация, используя схожее название (на кор. языке), при встрече с организациями и известными людьми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оторые намереваются посетить Сахалин или оказать помощь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действует так, будто является организацией, представляющей интерес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2. В чем проблема?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живают более 100 граждан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и, конечно, у них есть полное право свободно вести деятельность, учредив свое сообщество. Однако проблема в том, что добрые намерения и интерес граждан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о отношению к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Ассоциация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спользует со злым умыслом ради личных интересов и честолюбия.

<Ассоциация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постепенно смещавшая РООСК с ее места>

Когда в августе 2015 года на мемориальной плите, установленной на общественном кладбище №1 г.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 честь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не оказалось имени президента РООСК, а было указано имя председателя Ассоциа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мы поверили, что это просто ошибка.

И даже тогда, когда в июле 2017 года депутаты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города ххх при посещен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е предупредив нас заранее, так и не пришли на встречу с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и в актовый зал ККЦ, где договаривались встретиться, но при это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банкете с Ассоциацией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мы опять же посчитали, что это просто недоразумение из-за схожего названия организации.

Однако постепенно выясняется, что все это было не случайно.

<Намереваются отнять название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 вместе с этим идентификацию>

В мае текущего года Ассоциация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 одностороннем порядке уведомила о том, что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ть название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це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사할린주한인회), решив, что мы должны изменить название нашей организации на Ассоциацию материков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사할린주교려인동포회), аргументируя тем, что наша организация состоит только из граждан РФ.

Это их право менять на свое усмотрение название организации. При условии, что оно не совпадает с названием уже имеющихся организаций. Однако у них нет полномочий менять название нашей организации. Тем более, что в научных кругах 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РК очень ясно разделяют названия «материковские корейцы»(교려인) 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사할린한인). Мы используем название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как имя собственное, чтобы не забывать историческую особенность наших предков.

- Для кого этот мемориал?

До нас дошла информация, что в конце августа планируется открытие поминального мемориала, о котором не знают даже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живущие на Сахалине. Еще более удивляет тот факт, что мемориал строится на территории фермер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Роксан, которое является част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ью председателя Ассоциа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 под этим предлогом здесь планируется организация туристической программы. Тур.программа для большей правдоподобности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ся в форме исторической, но в качестве одного из пунктов программы включено посещение фермы крупного рогатого скота в хозяйстве Роксан. Более того, похоже, что эту программу без стеснений он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ть как, своего рода, оздоровительную, судя по тому, что по соседству с мемориалом он строит туристическую базу(места для ночлега).

Для кого же на самом деле строится этот мемориал, если к участию не приглашены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И возможно ли нормальное управление мемориалом, построенным на частной земле? И это не единственное, о чем стоит беспокоиться. Говорят, что на территории мемориала планируется установить поминальные дощечки. Даже в РООСК с осторожностью относятся к данным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так как это личная информация. Возникает вопрос: каким путем был получен список пострадавших, и можно ли использовать такую информацию без какого-либо согласования, только на основании того, что эти люди не имеют родственников и друзей.

3. Мы не можем простить злодеяния Ассоциа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отнявших у нас даже статус «распорядителя траурной церемонии»

В то время, как председатель Ассоциа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действуя от имен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ближался с известными и влиятельными людьми РК и придавал особую значимость своим деяниям, приукрашивая их в СМИ и на сайте Ассоциации, мы, не в совершенстве знающие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и потому не имеющие возможности возразить и рассказать о себе Корею, вынуждены были терпеть, думая: «не может быть».

Но мы больше не можем быть свидетелями злоупотребления добрыми намерениями, видя как даже такие корейские влиятель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как Фонд воссоедин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Хангёре 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Хангёре, не знают всей правды.

Потомки принудительно мобилизованных в период японской оккупации корейцев, которых вы хотите превозносить, это именно РООСК, представляющая интересы более 31 тысяч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а не председатель Ассоциа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 возведение мемориала нашим предкам, о котором мы не знаем и на которое мы не можем дать свое согласие, просто недопустимо.

Мы обращаемся к тем, кто помнит 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ах, забытых среди грустных страниц истории. И искренне просим выявить намерения людей, позарившихся на место «распорядителя траурной церемонии», которое безусловно существует.

Президент РООСК

/подпись, штамп/ Пак Сун Ок

(Текст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на 2 стр.)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С 20 по 26 августа состоятся встречи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Юга и Севера Кореи

С 20 по 26 августа в горах Кымгансан состоятся встречи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Юга и Севера Кореи. По окончательным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с 20 по 22 августа 93 южнокорейца встретятся со своим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ми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а с 24 по 26 августа 88 северокорейцев встретятся с родственниками с Юга Кореи. Самый старший из южнокорейски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 101-летний господин Пэк. По сообщению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он встретится с женой своего сына и внучкой. В свою очередь, в состав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делегации четыре человека в возрасте 91 года. Последние встречи членов разделённых семей прошли в октябре 2015 года.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ИД РК и Китая обсудили вопрос заключения мир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 понедельник в Пекине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спецпредставителя МИД РК по вопросам мира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Ли До Хуна и замминистра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Китая, спецпредставителя Пекина по делам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Кун Сюанью. Участники встречи обсудили ряд проблем, в том числе заключение мира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Ли До Хун в интервью агентству Ёнхап заявил, что встреча прошла продуктивно, были обсуждены недавняя поездка Кун Сюанью в КНДР, а также ряд других проблем. Ли До Хун также добавил, что позиции РК и Китая по урегулированию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КНДР полностью совпадают. Работа по данному вопросу продолжается, однако говорить о каких-либо результатах пока рано, отметил Ли До Хун.

Север вернул на родину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гражданина

КНДР репатриировала во вторник через пограничный пункт Пханмунчжом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гражданина в качестве «гуманного жеста».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речь идёт о 34-летнем человеке по фамилии Со, нелегально перешедшем межкорейскую границу в конце июля. Никаких других персональных данных, включая пол репатриированного, не сообщается. О предстоящей репатриации Красный Крест КНДР уведомил в понедельник своих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ллег. Южнокоре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ассматривает данный жест КНДР в «позитивном ключе», сообщ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В КНДР по-прежнему удерживаются шесть южнокорейских граждан, в том числе, трое миссионеров.

Сокращён перечень стран с безвизовым въездом на остров Чечжудо

Расширен список стран, гражданам которых запрещён безвизовый въезд на территорию острова Чечжудо. Теперь граждане ещё 12 государств - Египта, Гамбии, Сенегала, Бангладеш, Киргизстана, Пакистана, Сомали, Узбекистана, Непала, Камеруна, Шри-Ланка и Мьянмы - не смогут без визы посетить Чечжудо. Данные меры будут введены с 1 сентября для Египта, а с 1 августа для всех остальных стран. Безвизовый въезд на Чечжудо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в рамках специального закона, принятого в 2001 году. Ранее безвизовый въезд на Чечжудо был запрещён гражданам только 12 стран - Йемена, Ирана, Судана, Сирии, Македонии, Кубы, Косово, Палестины, Афганистана, Ирака, Ганы, Нигерии. Однако в связи с наплывом беженцев из Средней Ази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было вынуждено расширить список.

Ресторан китайской кухни Binhaewon получил статус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РК

Ресторан китайской кухни Binhaewon, приобретший известность благодаря южнокорейскому фильму "Шулер", получил статус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РК под №723. Это довольно редкий случай, когда действующий ресторан получает такой статус. Ресторан Binhaewon был открыт в 1950 году, а с 1965 года работает в нынешнем помещении. Чиновники отмечают хорошее состояние здания, а также его культурную значимость, особенно с точки зрения истории зарубежных китайцев. Помимо Binhaewon, указом Корей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о охране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шесть зданий, которые были построены в 1930-1960-е годы, были также внесены в реестр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страны. Среди них собор в уезде Чхильгок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Пукто и здание бывшего подразделения суда города Чонджу в Кунсане.

(RKI)

Корея не пойдёт в разведку

В Сеуле расформировали спецслужбы

Командование оборо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КОБ М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которая в себе совмещала функции военной разведки и контрразведки, будет ликвидирована. Вместо нее будет создана новая структура с существенно урезанными полномочиями и гораздо меньшим персоналом. Такое решение принял президент Южной Кореи Мун Чжэ Ин после ознакомления с результатами расследования ряда скандалов по поводу деятельности этой второй крупнейшей спецслужбы страны, которая некогда считалась самым влиятельным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м ведомством.

Согласно итогам проведенного расследования, КОБ МО РК была уличена во вмешательстве во внутреннюю политику на стороне отдельных сил, слежке за оппозицией, а также подготовке плана ввода войск в южнокорейские города для подавления возможного недовольства населения предыдущим президентом Пак Кын Хе в марте 2017 года. Более того, во-

енную разведку уличили даже в прослушивании телефонных разговоров между президентом и министром обороны в период правления Но Мун Хена (занимавшего пост с 2003 по 2008 год, - прим. "РГ"), который был сторонником развит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Пхеньяном, что не нравилось военным.

С учетом всех нарушений Командование оборо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будет ликвидировано, всех ее сотрудников вернут в обычные воинские подразделения, в которых они числились.

Впрочем, даже самые ярые критики КОБ понимают, что стране нужна организация, которая будет заниматься военной разведкой и контрразведкой. В результате вместо КОБ появится другая структура, которая будет существенно "урезана" в полномочиях. Она будет находиться в прямом подчинении министру обороны и обязана будет неукоснительно следовать его приказам.

Стали известны и обсуждаемые

варианты названия новой военной разведки - Командование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контрразведки или Командование военной разведывате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Ожидается также, что в целом уровень военной разведки в структуре МО будет существенно понижен. Если сейчас в КОБ есть 9 генеральских должностей, то в новой организации их будет 2-3, число полковничьих должностей сократят с 50 до 30. Количество сотрудников новой военной разведки сократится примерно на 30 процентов.

Одновременно в пятницу 3 августа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снял с должности начальника КОБ ВС РК генерал-лейтенанта Ли Сок Ку, назначив на его место генерал-лейтенанта Нам Ен Сина, который до сих пор руководил Командованием сил специального назначения Сухопутных войск ВС РК. Ожидается, что Нам в итоге возглавит и новую структуру, которая появится вместо КОБ ВС РК.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За рубежом пройдут культур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Traveling Korean Arts

С 10 августа по декабрь в 23-х городах 18-ти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ся культур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Traveling Korean Arts.

Подоб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водятся с 2014 года министерством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РК с целью представления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в других странах. В этой связи минкультуры и Корейский центр развития международных культурных обменов определили 11 программ. Это выставки произведений корейского изобразите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исполнение корейской традиционной музыки, фотовыставки и показы мод.

Так, в октябре-ноябре в Бразилии, Чили и Уругвае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традиционное корейское музыкальное шоу «Пхангут», а в декабре в Германии и Венгрии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концерты исполнителей на ударных инструментах «Чхондунсори». Группа Ssing Ssing, исполняющая корейскую традиционную музыку, аранжированную в стиле рок-эн-ролл, выступит на открытии фестиваля корейских поп-песен K-Music в Лондоне в октябре, а в Майами и Нью-Йорке в декабре. 10 августа в Маниле откроется фотовыставка «Mega Seoul 4 Decades», которая позднее пройдет в Пекине и Токио. 12 южнокорейских фотографий покажут прошлое и настоящее.

(KBS WORLD)

В сезон отпусков растёт популярность эссе

Продажи эссе в сезон летних отпусков выросли более чем на 40%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ошлым годом. Такие данные предоставила крупная сеть книжных магазинов «Кёбо мунго».

Если раньше в это время лучше всего продавались новеллы и романы, то в этом году их продажи, наоборот, снизились на 18%.

В последнюю неделю июля более половины двадцатки лидеров продаж приходилось на эссе. Например, в третью неделю июля третью и пятую строчки лидеров занимали эссе «Хочу умереть, но хочу ттокпокки» и «Медвежонок Пух: счастье есть каждый день».

Популярность эссе связана с их активным обсуждением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а также со снижением творческой активности известных писателей.

(KBS WORLD)

Новый терминал аэропорта Инчхон наращивает пассажиропоток рекордными темпами

Число пассажиров, воспользовавшихся услугами нового терминала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аэропорта Инчхон, превысило 9-миллионную отметку со времени его открытия шесть месяцев назад, сообщили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аэропорта.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прошлую неделю, более 9,08 миллиона человек прошли через второй терминал, который начал действовать 18 января. За шесть месяцев число воспользовавшихся услугами аэропорта также выросло до 33,44 миллиона, увеличившись на 12,6 процент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тем же периодом прошлого года. Доля второго терминала в общем пассажиропотоке составила около 27 процентов.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аэропорта предполагают, что общее число пассажиров, обслуживаемых аэропортом, в этом году достигнет рекордных 69 миллионов.

"На основе стабильной эксплуатации второго терминала мы планируем значительно расширить наши зарубежные проекты", - сказал глава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аэропорта Инчхон Чун Ир Ён.

(ИА РУСКОР)

Чхандоккун – самое популярное место ночных прогулок среди иностранцев

Сотрудники Сеульского фонда туризма провели в социальных сетях опрос среди иностранцев, говорящих на китайском, японском и английском языках.

По результатам опроса столичный дворец Чхандоккун был выбран самым популярным местом для ночных летних прогулок в Сеуле.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оказался дворец Кёнбоккун.

Цепочку популярных мест продолжили дворцы Чхангёнгун и Токсугун.

(KBS WORLD)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е полугодие 2018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79 руб. 3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Более 300 обращений приняли в диспетчерском центре связи для инвалидов по слуху

Работа в формате колл-центра создана на Сахалине на базе реабилит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для оказания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й и экстренной помощи инвалидам по слуху в 2016 году. Проект организован в рамк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рограммы «Доступная сред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ратиться в диспетчерский центр слабослышащие граждане могут из любого места, где есть выход в Интернет. Оператор-сурдопереводчик центра станет посредником в коммуникации между людьми с нарушениями слуха и слышащими гражданами, переведет с русского жестового языка на устную речь и обратно в дистанционном режиме.

По мнению Ирины Васюк, председателя региональ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глухих, диспетчерский центр помогает в жизни людям с ограничением слуха. Слабослышащие сахалинцы ежедневно сталкиваются с различными бытовыми и другими трудностями, которые теперь можно решить с помощью специалиста диспетчерского центра - переводчика жестового языка. Ирина Михайловна сама периодически пользуется его услугами.

- 3 августа мне понадобилась консультация в связи с задержкой авиарейса, - рассказала женщина через переводчика. - Сотрудники справочной службы аэропорта оперативно установили онлайн видеосвязь со специалистом диспетчерского центр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и с ее помощью разъяснили все возникшие вопросы.

Специалист диспетчерского центра связи Марина Гусева принимает видеозвонки при помощи веб-камеры через Skype и по WhatsApp. По ее словам, люди обращаются по разным поводам, начиная от самого простого, к примеру, отложить талон к врачу, и заканчивая достаточно сложными вопросами по коммуникациям с банками, вплоть до оформления кредита.

- В диспетчерском центре связи помогают слабослышащим людям получить консультацию и решить интересующий их вопрос, - отметила Елена Захарчук,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социальной политики министерства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Этот социально значимый проект позволил не только повысить доступность услуг, но и заметно улучшить качество жизни глухих и слабослышащих граждан.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диспетчерский пункт для людей с нарушением слуха расширяет границы возможностей. Онлайн-связью с диспетчерским центром обеспечены все учреждения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а также медицинские и учебные учреждения, библиотеки, кинотеатры, центры занятости, спортивные объекты. Практически во все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475 учреждений) и в большинстве областных учреждений (135)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оперативно связаться с сотрудником центра для решения вопросов слабослышащих посетителей.

О важности программы «Доступная среда» неоднократно заявлял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о поручению главы государства она продлена до 2025 года.

Сахалинские курсанты получили васильковые береты Президентского полка

Такой чести удостоились 21 человек. Это самые успешные воспитанники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Вымпел», которые прошли смену «Честь имею!». Ее торжественное закрытие состоялось на мемориале Славы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Региональные сборы начались 26 июля в сахалинском лагере «Артек» под патронатом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Вымпел» и поддерж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туризм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и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области. 100 сахалинских школьников из разных уголков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осваивали начальную военную, альпинистскую и медицинскую подготовки, приобретали навыки выживания в природной среде, изучали приёмы самозащиты, знакомились со стрелковым оружием.

Также за большие заслуги в патриотическом воспитании, за верность долгу и отечеству той же награды был удостоен инструктор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Вымпел» Игорь Колосов. Кроме того, наиболее отличившимся юным бойцам вручили сертификаты на участие в смене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рубеж», которая пройдет в начале сентября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детском центре «Океан» города Владивостока.

Шестнадцатилетняя Алина Копотилова из Смирных участвует в сборах второй год подряд. В этот раз девушка получила сразу две награды.

- Меня всегда привлекало военное дело. Люблю оружие, носить форму, маршировать. Больше всего мне нравится сборка и разборка автомата, - поделилась Алина. - Заслужить берет не так просто. Нужно каждый день усердно работать над собой и стараться отличиться в той или иной военной дисциплине. Носить берет - очень почетно. Это самая высшая награда для меня.

В завершение мероприятия участники церемонии почтили память воинов, павших в боях за освобождение Южного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от японских

милитаристов, минутой молчания. После прошло возложение цветов к Вечному огню.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ходит третий год подряд. В этот раз в военно-патриотической смене «Честь имею!»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дети из Долинска, Смирных, Холмска, Невельска, Анивы,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го, Поронайска, Углегорска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Датские и приморские коровы успешно акклиматизируются на Сахалине

С начала года на новое животноводческое предприятие в окрестностях села Троицкое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прибыли три крупные партии животных.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 это около восьмисот голов. Стадо постоянно увеличивается за счет отела.

- Приплод уже дают животные, завезенные на остров из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За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на свет появилось 128 телят, они родились крепкими и здоровыми, быстро развиваются и растут. До конца года ожидается и пополнение у коров, прибывших из Дании, все 564 животных стельные. На Сахалин их привезли в мае и июле. Адаптация к сахалинским условиям проходит успешно. У животных хороший аппетит, они находятся под круглосуточным ветеринарным контролем, - рас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департамента животноводства фермы Артём Гилевич.

Напомним, крупное животноводческое предприятие на юге острова является резидентом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Южная». Сейчас оно активно расширяется - готовятся к сдаче новые помещения для содержания скота, телятники и коровники.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проект реализуется при поддержке финансового института содействия развитию региона - «Корпорации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степенно поголовье на ферме планируется довести до 1900 голов дойного стада. Второй подобный комплекс компания «Грин Агро Сахалин» рассчитывает построить в районе села Безрезьяки.

Резидент TOP уже начал отправлять молоко на одно из молоко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х предприятий. Продолжа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обственного завода по переработке, который будет запущен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к 2020 году. Его проектная мощность составит 120 тонн молочных продуктов в сутки. Качество продукции благодаря современным технологиям будет на самом высоком уровне.

За полгода лечение в стационаре онкодиспансера прошли 3 620 человек

Онкологический диспансер — одно из самых крупных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региона. За первые полгода текущего года план оказа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в учреждении выполнен на 105%. Заместитель министр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Лариса Згурьева посетила диспансер и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ла работу медицинской организации по основным направлениям.

260 коек онкологического профиля распределены на 10 отделений. Кроме реанимационного и паллиативного, имеющих по 12 и 10 коек, в остальных по 30-40. По пути следования замминистра - ординаторские, медицинские помещения, палаты, пациенты дополняют доклады врачей.

Урологическое отделение — первое в маршруте. Это самая молодая структура диспансера - основана позже других - в 2007 году и возрастной состав специалистов не превышает 35 лет. Укомплектованность кадрами полная - 100%.

- Сколько времени потребовалось, чтобы попасть к специалисту, как долго ждали после предыдущей выписки до новой госпитализации, как кормят, есть ли условия для гигиенических процедур, хватает ли расходников, нет л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окупать лекарства? - в каждом отделении Лариса Згурьева фиксирует ответы больных, позже они дополнят аналитику по учреждению.

- Численный состав позволяет вести ротацию: чередование специалистов на амбулаторном приеме, дежурства в стационаре и проведение операций. Все врачи в отделении - оперирующие, - рассказывает об организации работы урологиче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заведующий Илья Белов.

Распределение обязанностей подобным образом формирует один из важных критериев - доступность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Пациенты в палатах подтверждают - ожидание приема уролога в поликлинике онкодиспансера редко превышает полчаса, что вписывается в предусмотренные нормативы. Схожие ответы и в других отделениях с высокой кадровой укомплектованностью.

Немалое значение уделяется бытовым вопросам, теме питания. В учреждении свой пищеблок, каждый день приходится готовить более 10 рационов, с учетом диетстола для разных групп больных. Такой порядок установлен отдельными приказами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РФ и не допускает авторских поварских интерпретаций в отд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хотя и здесь есть темы для разговоров.

- Мяса много, хочется больше рыбы, слишком пресно, - вкусы, бывает, не совпадают даже у нескольких человек в одной палате. Но большинство все же признает разумность отказа от привычной домашней пищи в пользу сбалансированной больницы, хотя и не всегда от этого выигрывающей по вкусовым качествам.

В каждом отделении - внимание расходным предме-

там: пеленкам, салфеткам, одноразовым средствам.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здрава лично убеждается в их наличии - проверяет процедурные и подсобные помещения. За это направление отвечают старшие медсестры подразделений. Они ежегодно формируют заявки, корректируя их п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в течение года, ведут учёт, следят за расходом, не допуская дефицита средств. В том числе следят за оборотом лекарственных препаратов.

- Сахалинский онкодиспансер - один из немногих в стране, который закупает наряду с лекарствами сопроводительные препараты. Курсы химиотерапии сопровождаются тяжёлым мучительным состоянием, рвотой и другими проявлениями. В области выделяю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финансовые средства, чтобы облегчить состояния таких больных. Стоимость поддерживающего лечения сопоставима с основным курсом терапии, при этом оно не входит в стандарты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Это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опция, комфорт, за который во всем мире, в частных клиниках идёт дополнительная оплата. Но онкодиспансер обеспечивает своих пациентов бесплатно. К тому же такие препараты используются не только для улучшения общего самочувствия, они помогают восстанавливать кроветворную систему организма. В год по этой статье расходов тратится до 13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Мы знаем реальную обстановку в других диспансерах, такую помощь оказывают только в крупнейших центрах страны, - комментирует главный врач онкологического диспансера Виктор Ли.

Несмотря на принимаемые меры, полностью нормализовать состояние, нейтрализовать действие химиотерапии невозможно. Врачи констатируют у части пациентов в такие периоды аффективные психические расстройства, вызванные не только физическими страданиями, упадком сил, подавляющим действием лекарственных препаратов, но и моральной тяжестью, сложностью диагнозов. В таких случаях к работе с пациентами онкодиспансера привлекается психотерапевт.

- Сложность работы с такими пациентами в том, что они замыкаются в себе, отвергают предлагаемую психотерапевтическую помощь. Для таких больных характерно стойкое подавленное настроение, негативное мышление. На какой-то период они перестают воспринимать радости окружающего мира, мышление направлено на углубление негативных проявлений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любые мелкие неприятности они воспринимают гиперболизировано. К примеру, требования соблюдения больничного режима воспринимаются, как арестантские. Хотя направлены, в том числе, на сохранение покоя и для остальных пациентов. Врачи с пониманием относятся к таким ситуациям, пр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й психотерапии эти состояния корректируются, человек возвращается к привычному мироощущению, - разъясняет тонкости работы врач-консультант-психотерапевт Юлия Пичугина.

Гинекологическое отделение - здесь ситуация с кадрами наиболее тяжёлая. При потребности в пяти специалистах на 40 коек имеются только 2 врача - онколога и один терапевт. При этом количество пролеченных больных и объёмы хирургической помощи сохраняются на высоких показателях. В первом полугодии в отделении выполнено 182 операции. Уже 27 августа ожидается прибытие ещё одного опытного специалиста-онкогинеколога. Свои надежды на стабилизацию работы отделения руководство связывает с решением кадрового вопроса по всему учреждению. В этом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трудоустройство двух радиологов, клинического лаборанта, в перспективе ожидаются ещё два рентгенолога, с ними уже заключены договорённости. Также в этом году в онкодиспансер придут два специалиста для прохождения ординатуры и планируется выход из декретного отпуска заведующей гинекологическим отделением.

В круг общих вопросов по стационару также вошли проблемы с селекторной связью - кнопки вызова медработника имеются в нескольких корпусах, в остальных - в режиме установки или ремонта после поломки, не везде имеются поручни в санитарных комнатах, при том, что уже начата их поэтапная установка. С медицинским персоналом проведены беседы о соблюдении норм этики и деонтологии, хотя пациенты сами чаще отмечают доброжелательное отношение.

- Мы все женщины, болеем, бывает, капризничаем. Но такой видим, что люди стараются, тут труд совсем нелёгкий - со всеми обязанностями справиться, к каждой из нас найти подход, - отмечает одна из пациенток гинекологиче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Главной проблемой в оказании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ой помощи, по мнению большинства пациентов, а также врачебного состава, является отсутствие отрегулированной маршрутизации пациентов с амбулаторного этапа на стационарный.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с учетом мнения пациентов, проводится работа по пересмотру маршрутизации и сокращению сроков ожидания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광복절 앞두고 코르사코브 사할린희생동포위령비 참배

지난 4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회(회장 림중환) 회원들이 광복절을 앞두고 약 15명의 노인정 할머니들을 모시고 코르사코브 망향의 언덕에 위치한 사할린희생동포위령비에 참배했다. 이날 이들은 사할린 한인들의 아픈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겼다.

이날 코르사코브 한인회(회장 이태출(이태준) 대표들도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온 손님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위령비가 코르사코브에 위치하다보니 코르사코브 한인회는 위령비 현장 정돈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본사 기자)

(사진: 유즈노사할린스크시한인회 제공)



사할린 한인, 그들은 누구인가

최경옥(영산대학교 법학과 교수)

(3면의 계속)

그 결과 출생지주의를 취하는 거주국과 이중국적 상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1965년 6월 3일, 인도네시아와 이중 국적 문제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를 시작으로 동남아 및 주변 국가의 화교 문제를 해결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 정부는 중국이나 러시아에 게 이러한 문제에 관하여 아직도 조약체결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재외국민보호에 대한 부작위이다.

이와 같이 중국 정부가 자기 나라 동포들에게는 혈통주의를 취하면서, 한국이 재외동포법에서 재외한민들에게 일정한 우대를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것은 국제적 관례에도 어긋나며, 이에 밀려 한국 정부는 혈통주의가 아닌 과거국적주의를 채택한 것은 우리 정부의 주권의식과 외교력의 한계를 내는 부분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한국 정부의 책임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 각국에서 역사의 조난자들의 돌아올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2) 고려인과 사할린 한인을 위한 특별법

중국 동포들을 위하여서는 2001년 5월, '중국동포 업무처리지침'(2001. 5. 7. 법무부예규 제551호로 개정된 것)이 있었으나,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2005. 6. 17. 법무부예규 제729호로 개정된 것)으로 전환되면서 폐지된다. 이러한 지침과는 별도로 고려인동포들에 관한 특별법은 2010년 5월,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0306호, 2010. 5. 20. 제정, 시행 2010. 11. 21. 그리고 다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개정; 이하 '고려인 동포법'으로 칭함)'은 보다 늦게 제정되었다. 물론 이는 전자는 국적에 관한 처리지침이고, 후자는 고려인 동포들의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을 위한 특별법이다. 중국 조선족이나, 사할린 한인이나 위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서 국적회복을 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사할린 한인 등 고려인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한 것은 강제징용으로 사할린으로 갔다가 영주 귀국하는 사람들의 체류와 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것일 것이다. 동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자격 취득을 지원하고 고려인동포의 권익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제2조에서는 고려인 동포의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즉 이 법에서 "고려인동포"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제2조). 그러나 이는 법 조문 중'...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어 국외 체류 고려인 동포들을 위한 법이 되어 '국내 체류 고려인과 사할린 동포를 포함한다'는 내용이 명확하지가 않아 현재 국내 거주 고려인, 또는 사할린 동포 등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같은 이유로 국내 체류 고려인 동포에 대한 정부 지원과 대책이 누락되어 안정적인 모국 생활을 위한 거주, 교육, 의료 지원 등이 포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게다가 이는 고려인 동포들에 국적 취득 부분이 누락되어 있어, 지난 14년 12월 3일 이인체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출된 개정안 3조(정책의 수립 등) ① 정부는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거주국 체류자격 취득 및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국가와의 협력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영주고려인 동포의 대한민국 국적 회복과 국내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19대 국회에서도 '사할린에 강제동원으로 이주하였거나 사할린에서 출생한 한인과 배우자, 직계비속1인과의 배우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이들의 영주귀국을 지원하는 '사할린 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었으나 여전히 계류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도 영주귀국 대상에 '그 직계비속1인과 그 배우자'로만 제한이 되어 있어 역시 제2의 이산가족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들은 여전히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협상 당시 '1세'에 대한 규정은 이들이 고향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영주 귀국 대상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강했다. 김영삼 대통령도 희망자 전원에게 영주 귀국을 언급했고, 과거 사할린에 있던 일본인들이 본국으로 귀환되는 과정에서도 희망자 가족 전원을 인양했던 것처럼(심지어 유골 봉환까지 하였다.) 연령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귀국시켜 달라는 의미였던 것이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1세와 직계비속 1인이라는 형태로 고정화되어 갔던 것이다.

현재 사할린에는 4세대까지 내려오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사할린에 있는 자국민에게 자손까지 동반 귀국을 허용하고 있으며, 중국에 남겨진 일본인에게도 동일하게 허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직계 조상 중 한쪽만이라도 독일계이면 귀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문제는 사할린 한인들의 귀국의 경우 한일정부가 일본 정부의 보상 형식으로 실시가 되면서 그 영주귀국 대상은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할린에서 출생했거나 거주한 한인1세에 한하여 그들의 배우자와 장애자녀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는 한국과 러시아의 영주귀국 협의시에 러시아 정부가 주관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한국 정부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러시아 정부는 약 2만 7천여명의 사할린 동포의 대규모 이주를 우려한 나머지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층을 중심으로 한국 이주를 허용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할린에서는 이러한 영주귀국을 '고려장'이라 지칭하기도 한다. 그 결과 이들은 사할린으로 가기 위하여 이산가족이 되었고, 또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자식들과 헤어져야 하는 이중 이산가족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 위의 사례에서 살펴본 다른 나라들은 직계혈통이면 언제든지 돌아올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상황과는 대조적이다. 그러므로 한국 정부와 국회 모두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조속한 입법과 정책이 강구되어 귀국을 희망하는 고려인 동포들이 하루빨리 고국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러시아 정부와 재협상에 나서야 할 것이다.

현재 영주귀국자들은 국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어 특별생계비, 기초노령연금, 의료 급여 등이 제공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재정 부담으로 인하여 그들의 귀국을 1세와 그 2세 1인과 그 배우자 정도로 제한한다면, 이러한 재정정책이나 복지는 그 1-2세에 한하고, 그들의 혈통들에게는 '돌아올 권리'를 보장하는 선택적 정책이 요구된다 할 것이다.

(계속)

[우리말로 깨닫다]

과거를 보는 눈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입니다.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인간의 특징이기는 하지만, 생각 때문에 흔들리고 괴로워하는 것도 인간입니다. 생각 때문에 기쁘기도 하지만 생각 때문에 한없이 슬프기도 합니다. 모든 생각이 똑같은 게 아닙니다.



▲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우리는 어제를 생각하기도 하고 내일을 생각하기도 하죠. 과거를 생각하는 것을 회상이나 후회라고 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것을 희망이나 계획 또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생각은 머리로도 하지만 눈으로도 합니다. 눈은 우리 생각의 방향을 보여줍니다. 눈만 봐도 언제 일을 생각하는지 대강은 알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를 생각할 때는 보통 왼쪽 눈이 위로 올라갑니다. 반대로 다가올 일을 생각할 때는 오른쪽 눈이 위로 올라갑니다. 물론 눈이 올라가지 않은 채 생각에만 잠기는 경우도 있죠. 억지로 다른 방향으로 눈을 올리려고 하면 피곤해지기만 합니다. 이렇게 생각에 따라 올라가는 눈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은 아마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과거와 미래는 기억의 창고가 달리 마련되어 있나 봅니다. 기쁜 일과 슬픈 일의 기억 창고도 다를까요?

우리는 언제 과거를 생각할까요? 일단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생각하는 비율이 많아질 겁니다. 돌아볼 일이 많고 후회나 회한도 많기 때문이겠죠. 과거의 특정한 부분은 자꾸만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러한 생각이 차곡차곡 쌓여있을 겁니다. 그래서 힘이 들 때 옛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추억이 떠오르고, 옛일이 생각나고 후회가 많아지면 지금 내가 힘든 겁니다. 그럴 때 우울해지기도 쉽습니다. 너무 과거 속에 빠져있어도 안 된다는 말입니다. 과거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면 의도적으로 미래에 대한 생각도 하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젊을수록 미래에 대한 생각이 많겠죠. 앞일에 대한 걱정도 나쁜 것은 아니지만 희망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한 걱정은 계획을 단단하게 만들어주지만 지나친 걱정은 현실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역시 지나친 걱정도 우리를 우울하게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어날 가능성이 적은 일에도 걱정을 합니다. '만일(萬一)'이라는 말은 '만에 하나' 즉 '만 분의 1'이라는 의미입니다. 걱정과 희망의 조화(調和), 걱정을 희망으로 만드는 힘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하나씩 하면 좋겠습니다. 현재를 바꾸면 미래도 바뀝니다. 걱정을 줄이는 방법은 지금 일을 하는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현재를 사는 거죠.

나이 드신 분들이 기억을 잃을 때 최근의 일부터 잃게 된다는 것은 특이한 일입니다. 최근에 일어난 일이 기억에 생생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마도 옛 기억은 자신의 속 깊이 박혀 흔들리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바쁜 현실에서는 들여다보지 못하지만 현실을 놓아버리면 과거로 흘러가게 됩니다. 돌이키고 싶은 일과 잊고 싶지 않은 일은 기억 속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기억이 가장 오래까지 남게 될까요? 알 수는 없지만 궁금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기억이 잊고 싶지 않은 기쁨이면 좋을 텐데, 아쉬움이 많을 것 같아 벌써 마음 한 구석이 찢어집니다.

요즘 저는 어릴 적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부모님과 어딘가 여행을 갔던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기억이 없는 게 아니라 여행을 간 일이 별로 없는 겁니다. 어려웠던 시절이지요. 그래도 파편처럼 남아있는 어릴 때 기억이 씩씩하면서도 좋습니다. 아이들과 여행을 갔던 기억도 납니다. 이건 기억에 많네요.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아이들에게 추억을 주고 싶었는데 좋은 기억이 되었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니 제 기억 속에는 슬프고 괴로운 일과 여행의 추억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기쁜 기억이 많아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 모 저 모

(3면의 계속)

А вот новые мастерские открыты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в возрасте от 12 до 16 лет. У сахалинских подростков есть редкий шанс попробовать себя в качестве продюсеров и дизайнеров. Продюсерская мастерская "Успех!" и мастерская дизайна "24/7" — новинки кинофестиваля. Первую будут вести Алексей Агранович и антрополог Михаил Алексеевский, знакомый сахалинцам по мастерской "Сделай сам", а вторую — графические дизайнеры, создатели фирменного стиля "Края света" Кирилл Благодатских и Анна Наумова.

Отбор конкурсных заявок стартовал 2 августа и продлится до 19-го.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크 해변가 휴양객들에게 무료 죽 대접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크 구역에서 "죽은 우리의 어머니다" 제1회 지역 간 음식축제가 준비 중이다. 축제는 8월 18일 현지 해변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아마추어 요리사들은 모닥불을 지피 본래 요리법으로 큰 가마솥 6개에 죽을 조리하고, 여성 공예가들은 휴양객들을 위해 가정용 부적 만들기 활동교실을 진행한다.

이 지역 문화회관의 나탈리아 네웨롭스카야 관장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주최 측은 축제 아이디어를 몇 년에 걸쳐 숙고했다고 한다. 해변가에서 생선스프 끓이기는 관습적이고 상식적이지만, 죽 끓이기는 특별하고 풍성한 것이다.

"우리는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크와 티몹스코예에 속한 몰로제즈노예와 바스크레세노브카 마을에서 요리사들을 모아 6팀을 구성했다. 8월 18일 아침, 이들은 집의 주방용품과 가마솥을 가지고 해안가 석유탱크 비축기지가 있던 곳에 마련된 행사장으로 간다. 즉시 음식 준비에 착수하지 않고 텐트를 치고, 식탁을 준비하고, 러시아 전통식 전시장을 설치하고 각 팀을 소개할 예정이다. 12시쯤 무대공연으로 축제가 개막되고 요리사들은 조리에 착수하게 된다."고 전했다.

참가자들에게는 각자 자신의 요리 걸작품을 만들도록 시간을 주고 요리의 재료와 조리법은 자유로이 선택하도록 했다. 죽의 용량은 5-10리터로 현재 두 팀만이 요리명을 밝혔다. - 보리죽, 고기와 호박을 넣은 쌀죽이다.

특별심사위원들이 우선 시식을 하고 <버터를 넣으면 더 맛있다.>, <공짜 죽> 등 부문에서 몇몇 우승자를 선정하고 모닥불 피우기 부문의 우승자도 선정한다. 상품은 주체와 관련하여 식품선물세트, 가전제품과 생활용품

을 수여한다. 이후 모두가 죽을 시식하고 수공예가들은 자작나무 공예품, 뜨개인형을 전시하기로 계획한 가운데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크 가정민속예술 전문가들은 부적인형 만들기 활동교실을 진행할 계획이다.

축제 측은 방문객과 지역 주민을 위한 축제다운 축제가 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해변가에는 음악인들이 콘서트를 열고 예술가들은 무대 공연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Отдыхающих на пляже в Александровске-Сахалинском накормят кашей из топора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ий готовится к первому межрайонному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ому фестивалю «Каша - мать наша!». Он пройдет на местном пляже 18 августа. Повара-любители сварят шесть больших котелков каши на костре по оригинальным рецептам, а мастерицы сошьют для отдыхающих обереги для дома.

Как рассказала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центрального районного дома культуры Наталья Неверовская, идею проведения фестиваля организаторы вынашивали несколько лет. Варить уху на берегу моря - дело привычное и логичное, а вот кашу - нетипичное и особенно сытное.

- Мы собрали шесть команд поваров из сел Молодежное и Воскресеновка из Тымовского района и Александровска-Сахалинского. Утром 18 августа они вместе с домашней утварью и котелками придут на площадку, расположенную на месте бывшей нефтебазы на берегу моря. К приготовлению своих блюд они приступят не сразу. Сначала установят палатки, столы, экспозиции в русском стилизованном стиле, презентуют свои команды. В 12:00 состоится театрализованное открытие фестиваля. После кулинары приступят к готовке, - рассказала Неверовская.

Участникам дадут только несколько часов на создание своих кулинарных шедевров. Они сами выбирают ингредиенты и рецепт. Объем котелков - от 5 до 10 литров.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только две команды раскрыли названия будущих блюд - перловая каша и рисовая с мясом и тыквой. Дегустировать будут специально созданное жюри. Победителей выберут в нескольких номинациях, в том числе «Кашу маслом не испортишь» и «Каша из топора». Приз получит и лучший костровой. Подарки будут тематические - продуктовые наборы, бытовая техника и инструменты.

После все желающие смогут попробовать каши. Мастерицы организуют выставку изделий из бересты, вязаных игрушек, а специалисты дома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Александровска-Сахалинского покажут мастер-класс по созданию крупеничек - тряпичных кукол-оберегов.

Фестиваль обещает стать настоящим праздником для жителей райцентра и гостей. На берегу моря музыканты сыграют концерт, а артисты представят театрализованную программу.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박해룡 사할린주한인협회 전 회장님께 드리는 축하문

Уважаемый Николай Иванович! Поздравляем с Юбилеем мудрости! Пусть возраст не огорчает, а вдохновляет и приносит радость. Отменного Вам здоровья и долгих лет жизни!



80세를 맞이하신 박해룡 선생님께 건강하시고 가정의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Московск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Обществ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광복절 기념행사

2018년 8월 18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러시아 - 나의 역사>역사파크 근처 행사장에서 광복 73주년 기념행사가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명절 행사 프로그램:

10시 - <슬라와(영예)광장 (군국주의 일본으로부터 남부사할린 및 쿠릴열도 해방자 영예 기념종합기념관) 성화에 헌화.

11시 - 16시 - 광복 73주년 기념행사 개막, 남북(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사할린 아티스트들의 공연프로그램.

행사장에서는 민속놀이, 스포츠경기, 민속공예교실, 비빔밥축제, 사진전시, 동양무술축제, 사할린동포 창작, 대중놀이 등이 펼쳐진다.



조직위원회

<2018년 제2학기 한국어 및 한국문화 강의 신청>

사할린한국교육원

2018년 제2학기 한국어 및 한국문화 강의 신청을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신청기간: 2018.8.13(월) ~ 8.31(금) 18:00
2. 개강식: 2018.9.7(금) 17:00, 교육원 대강당
3. 수업 시작: 2018.9.10(월)
4. 신청방법: 신청은 사할린한국교육원 사이트에서 할 수 있음. 또는 교육원에서 서면신청서 작성, 사진을 붙여 교육원에 제출.
5. 문의: 교육원 전화 50-56-96

Билеты на концерты, в театр, кино

Покупай онлайн

<p><i>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i></p>			<p><i>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i></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